

# 여름철에 꼭 점검해야 할 양돈장 사양관리

## 1. 머리말

**외**래질병은 양돈장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안겨주고 틈이나면 감염기회를 노리고 있다. 양돈장에서 소독과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있지만 이는 한계가 있고 집단으로 양돈장이 모여있어 안심할 수 없다.

주위에 모여있는 양돈장이 서로 방역의식을 고취하여 철저한 소독과 질병발생상황을 공유해야 한다. 요즘은 전문컨설턴트가 많이 있으므로 질병정보는 물론 평상시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길목이다. 더위에 유난히 민감한 모돈과 웅돈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사히 여름을 넘기는 양돈장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차단방역에 크나 큰 도움이 된다.

가을과 겨울에 유난히 분만율이 낮아지고 출하두수가 절감하는 현실을 여름철 사양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많은 문제가 여름철 사양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모돈의 사료 섭취

중점관리사항을 준비해두어 대비해야 한다.

## 2. 본론

### 1. 시설부분의 여름철 대책

#### 가. 물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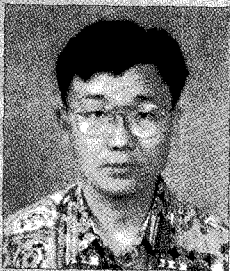
포유모돈에 있어 물부족 현상은 사료섭취 양에 저하를 초래하여 유즙 분비에 문제가 되어 포유자돈이 위축되거나 설사를 일으켜 생산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포유자돈은 물부족으로 인하여 입질사료에 적용이 어렵게 되고 이유후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항상 돼지에 있어 사료섭취가 저하되거나 위축이 시작되면 니뿔을 점검하여 충분한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

#### 나. 그늘막

각 돈사의 벽과 처마 끝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지붕에서 직사광선을 차단해 주고 벽이나 땅의 열을 돈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웅돈사에 있어서는 운동장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하절기 불임의 원인을 미리 진단해준다.

비육사는 벽과 지붕이 낮동안 뜨거워져



조 상 욱 원장  
중앙동물병원

서 돈사내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사료섭취 불량으로 인한 증체 저하를 미리 막아야 한다.

#### 다. 스프링 쿨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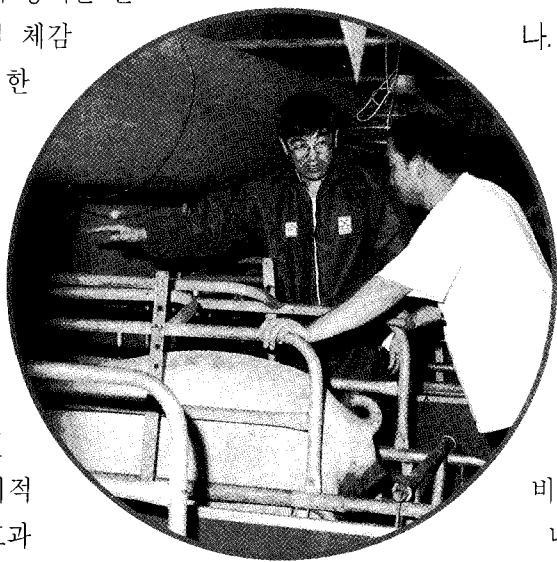
태양열이 지붕을 가열시켜 돈사내 온도를 급속도로 상승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붕에 살수 장치를 설치해 준다.

#### 라. 돈사내 송풍기 설치

돈사내 높은 온도의 공기를 순환 및 배기시켜 돼지 체감 온도를 낮추어주어야 한다.

이런 포유사들은 보온을 유지시켜 준다.

분만사에는 비닐 닥트를 설치하여 모돈에게만 시원한 공기를 불어주고 임신사와 비육사는 중계적 송풍기를 설치하면 효과적인 온도저하를 이룰 수 있다.



▲분만사에는 비닐 닥트를 설치하여 모돈에게만 시원한 공기를 불어주고 임신사와 비육사는 중계적 송풍기를 설치하면 효과적인 온도저하를 이룰 수 있다.

## 2. 사양부분의 여름철대책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돼지들이 여름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특히 번식 장애 부문이 무엇보다 문제가 될 것이고 사료섭취량 저하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가. 후보돈 확보

사계절 중 여름철 모돈 도태가 가장 많다. 또한 번식성적이 낮아지는 시기이므로 후보돈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한다.

중부전 과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2회에 걸쳐 주사해 주고, 분만 모돈의 후산을 먹여 농장 내 병원체에 미리 순응시켜야 한다.

첫 중부는 120kg에 실시하며 방북을 시켜 자제를 튼튼하게 해준다.

#### 나. 모돈 및 웅돈관리

##### 1) 포유 모돈과 자돈에서의 문제들

포유 모돈이 고온에 영향을 받으면 식욕이 저하되고 사료 섭취량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결과적으로 유즙분비가 저하되어 무유증이나 저유증을 유발해 포유자돈 설사증이나 위축돈 발생이 높아지고 입사율이 증가한다.

이것은 모돈이 음수량 부족으로 인해 체온이 상승하고 사료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분만후 3일간은 모돈급이기에 추가로 물을 부어주도록하여 모돈의 무유증이나 저유증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 분만사가 습하여 자돈들이 설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한 청결하고 건조하게 하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분만 7일전 분만사료 이동시키고 사료량을 줄여준다.
- 분만사 입시시 소독과 구충을 실시한다.
- 연산을 줄여주고 낮동안 간호분만을 위해 유도 분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분만후 5일 이후 사료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준다.

- 분만후 충분한 물 섭취를 위해 물을 별도로 급여한다.

- 이유시 비타민 AD3E제제와 미네랄계통의 약제를 주사하여 재귀 발성을 촉진시킨다.

2) 웅돈관리

하절기 교배돈의 분만을 저하는 계절적 불임증과 웅돈의 고온스트레스에 의한 수태율 저하가 그 원인인데 웅돈이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해 주어야 한다. 고환에 시원한 물을 뿌려주고 그늘막을 설치하여 시원하게 해준다.

- 식욕부진에 대비하여 급이통내 부패한 사료를 청소해주고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 장기적으로 정액검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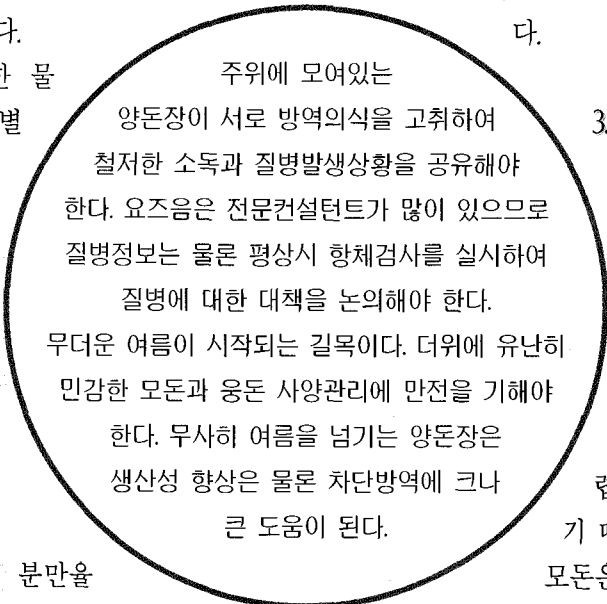
다. 백신접종

여름철 모돈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철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 일본뇌염 : 4월말 1차와 5월말 2차를 접종한다.

- 돈단독과 콜레라 : 분만후 15일 경과후 주사해준다.

- 파보 : 분만후 20일째 주사해준다.



3. 결론

여름철 사양관리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관리이다. 이는 돼지 자체가 높은 온도에 적응이 어렵고 사람 또한 지치기 때문에 어렵다.

모돈은 25℃가 넘으면 황체 유전증이 발생하여 재귀 발정이 늦어지고 무발정 혹은 유산 발생이 높아진다. 웅돈을 정액양이 줄어들고 기형 정자와 죽은 정자 양이 많아서 수태율이 급격히 줄어든다.

포유 모돈에서부터 비육돈에 이르기까지 사료섭취가 줄어들어 영양이 충족되지 않아 여러 가지 대사성질환이 발생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설 부분과 사양관리 모두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생산성 향상에 발전을 기해야 하겠다. **양돈**